

08 고 교 과 목 별

세특, 무엇을 적어야 읽히는가

깊이의 기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깊이의 기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세특이 값을 갖는 곳은 어디인지 — **학종 30,468명**, 교과와 논술은 대개 안 봅니다
- ◆ **덜 읽히는 기록과 잘 읽히는 기록** — 주어·내용·결과·이어짐으로 갈라 본 표
- ◆ **깊이의 기준 셋** (물음이 자기 것인가·한 단계 더 갔는가·이어졌는가)
- ◆ 학기 중에 하실 일의 차례 · **깊이로 오해되는 것들** · 점검표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읽는 사람이 있는 유일한 서류

「세특에 뭘 적어야 하나요?」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세특은 학생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적습니다. 그러니 물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 「무엇을 적어야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을 적을 수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세특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형	모집 인원	세특을 보는가
학생부종합	30,468명	핵심 자료입니다 — 사람이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26,958명	대개 안 봅니다 — 등급만 셉니다
논술	9,314명	거의 안 봅니다

세특이 값을 갖는 곳은 학종입니다. 그리고 학종은 수시에서 가장 큰 갈래입니다 — 30,468명입니다.

그러니 학종을 볼 생각이 없으시면 세특에 힘을 쓰실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거꾸로 학종을 주력으로 보신다면 세특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전형별 서류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나머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통계가 아닙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한 일과 읽히는 일

같은 활동을 해도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 읽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덜 읽히는 기록	잘 읽히는 기록
주어	수업이 무엇을 다뤘다	학생이 무엇을 했다
내용	발표를 함	무엇을 왜 그렇게 다뤘는지
결과	잘함 · 우수함	어디까지 갔고 무엇이 남았는지
이어짐	한 번으로 끝	다음 학기에 이어짐

가장 흔한 어긋남 — 수업 내용만 적힌 기록

「○○ 단원에서 △△를 배우고 관련 발표를 함. 성실함.」 이런 문장은 어느 학생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적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적힙니다. 한 반에 여러 명, 여러 반을 가르치시는 분이 기억에 남는 것이 없으면 일반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적을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활동을 크게 벌이는 일이 아니라 수업에서 남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질문입니다. 수업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그 답을 따라 조금 더 알아본 뒤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선생님 입장에서 적을 것이 생기는 유일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이 세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공개 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렇게 적으면 합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03 · 깊이의 기준

무엇이 깊은 것인가

「깊이 있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깊은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저희가 쓰는 잣대는 셋입니다.

Q. 하나 — 물음이 자기 것인가

주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드러나면 깊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주제」와 「수업 중에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같은 결과물이어도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기록에 「왜 이걸 하게 됐는지」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대단한 계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과서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도 훌륭한 출발입니다.

Q. 둘 — 한 단계 더 갔는가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간 흔적이 있으면 눈에 띕니다.

직접 재 보거나, 다른 자료와 견주거나, 반대 주장을 찾아보거나,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특히 「해 봤더니 예상과 달랐다」는 기록이 잘 읽힙니다. 실제로 해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Q. 셋 — 이어졌는가

한 학기에 하나씩 흩어진 활동보다, 2학년의 물음이 3학년에서 이어지는 것이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목이 달라도 된다는 점입니다. 국어에서 시작한 관심이 사회에서 이어지고 과학에서 확인되면, 세 과목의 세특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학종이 읽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3에 만들 수 없습니다 — 시간이 필요한 종류의 것입니다.

거꾸로 깊이로 오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낱말, 대학 수준의 주제, 거창한 제목. 이런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닌 티가 나기 쉽습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로 한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이 세 잣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마다 보는 눈이 다르며,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학기 중에 하실 일과 점검표

세특은 학기가 끝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하셔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왜
학기 초	관심 있는 과목 두셋을 정합니다	전 과목은 못 합니다
수업 중	궁금한 것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수업 뒤	그중 하나를 찾아보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생깁니다
수행평가	그 물음을 주제로 삼습니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학기 말	한 일을 정리해 둡니다	다음 학기에 이어 갑니다

「과목 두셋」으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도하면 다 알아집니다. 진로와 가까운 과목 둘셋에 힘을 모으는 편이 훨씬 잘 읽힙니다.

이번 학기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힘을 모을 과목 두셋 을 정했는가
- ☐ 수업에서 궁금한 것을 적어 두고 있는가
- ☐ 그중 하나라도 찾아본 것 이 있는가
- ☐ 찾아본 것을 선생님께 다시 가져갔는가
- ☐ 수행평가 주제를 내 물음에서 잡았는가
- ☐ 「해 봤더니 달랐다」가 하나라도 있는가
- ☐ 지난 학기 활동과 이어지는 것 이 있는가
- ☐ 남이 대신 해 준 부분이 없는가

네 번째가 실제로 기록을 만듭니다. 혼자 조사하고 끝내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가져가야 적힙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특을 만들어 준다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세특은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적는 기록입니다. 밖에서 만든 결과물을 가져가도 선생님이 보지 않은 과정은 적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관련 내용은 기재가 제한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라 오히려 공평한 자리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세특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진로가 안 정해졌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정해서 맞추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학종이 보는 것은 「진로가 일관되는가」 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사람인가」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바뀌어도 **바뀐 까닭이 보이면** 그것도 읽힙니다.

실제로 **고1에 정한 진로가 끝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대학도 그것을 압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 진로가 없으시면 **지금 재미있는 과목에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파고든 흔적이 남으면, **그 자체가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Q. 선생님이 잘 안 써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왜 그런지**를 보셔야 합니다. 대개는 **적을 거리가 없어서**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학생이 한 것을 선생님이 보셨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혼자 조사하고 제출만 했다면, 선생님은 **결과물만 보신 것**입니다. **과정을 보셔야 과정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수업 중에 묻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거 찾아봤는데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건 학생이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과목에서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셋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학생도 선생님도 지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세특은 **쓰는 서류가 아니라 남는 기록**입니다.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에서 전형별 인원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이며, 세특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의 평가 기준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단정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